

유도전공 대학생들의 진로탐색에 따른 진로적응력 및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이원희**(용인대학교 교수)

국문초록

이 연구에서는 유도 전공 대학생들의 진로탐색에 따른 진로적응력 및 진로준비행동의 구조적 관계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경기도 Y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 가운데 유도전공자들로 표집을 하였다. 구체적으로 2020년 3월 1일부터 5월 2일 까지 약 2개월 간 250명의 유도전공 대학생들을 표집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SPSS/Win 18.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및 상관관계 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유도전공 대학생들의 진로탐색은 진로적응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유도전공 대학생들의 진로탐색은 진로준비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유도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적응력은 진로준비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진로탐색, 진로적응력, 진로준비행동

* 이 논문은 2020년도 용인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재원으로 수행된 연구임

** opchampion73@naver.com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은 예비사회인으로서 자신의 진로정체성을 확립함과 동시에 목표를 수립하여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중요한 시기이다. 그러나 국내 청년 실업률은 매년 높아지고 17년 만에 최고치인 10.3%를 기록하는 등(통계청, 2015) 현대의 대학생이 처한 현실은 어려운 상황이다. 더구나 이러한 현상이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저하와 낮은 고용탄력성, 고학력자의 증대 등 구조적인 문제가 원인이라는 점에서 대학생들이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진로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대학생들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동안 빠른 변화환경에서의 적응을 강조한 최근의 진로에 대한 연구자들이 계획과 준비에 대한 개념을 외면하고 주어진 상황에서 필요한 임기응변만을 강조한 것은 아니다. 이들 역시 진로결정을 위하여 탐색과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Savickas(2005)는 의사결정에서의 대비를 위한 탐색활동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탐색을 통한 정보 수집은 자신과 직업세계에 대해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더불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학습하게 하여 다양한 문제해결의 대안제시를 위한 기초가 된다고 보았다. 또한 Morrison과 Hall(2002)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적합한 행동을 수행하는 반응학습이 경험 학습을 통하여 필요한 지식을 통합하고 활용하는 과정으로 형성된다고 하였다. 이들이 언급하는 진로탐색행동은 기존의 연구자들이 제시하였던 자신과 환경에 대한 분석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만을 추구하기보다 상황의 변화 가능성 및 새로운 기회 발견에서 보다 수용적이고 적극적인 관점을 가질 것을 강조한다.

Savickas(1997)와 Krumboltz(2004), Vianen, Pater, Preenen(2009)은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미래의 예측이 점점 어려워지는 현대사회에서 예전처럼 구체적인 목표와 체계적인 분석으로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일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어 직면한 환경에 대한 대응보다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Savickas(1997)는 이와 같은 관점을 구체화하여 진로적응력의 개념을 제시한 바 있다. 그는 진로가 개인 고유의 직업적인 흥미와 능력, 가치관에 직면하는 환경을 맞추어 가는 과정에 의미를 부여하며 형성되는데, 사회적 요구와 개인의 상황 역시 고정적이 않고 지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진로적응력이 필요하다.

대학생의 진로에 있어 적응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실증연구에서 높은 진로적응력은 성공적인 직업의 전환(Germeijs & Verschueren, 2007)과 고용가능성(Guzman & Choi, 2013) 등 더 많은 일자리의 제의와 직장에 대한 만족(Koen, Klehe, Van Vianen, Zikic, & Nauta, 2010)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의 진로적응력에 관한 연구는 최근 들어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개인의 다양한 내적 인 특성과 행동적 특성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알아본 연구는 부족하다. Savickas(2005)는 진로적응력이 개인의 인지, 성향, 심리 등 다양한 요소들의 복합적 상호작용을 가정하며, 개인이 가진 적응성향이 실천적 행동으로 표출되고, 이러한 경험이 꾸준히 누적되는 과정에서 개발된다고 하였다. 진로적응력의 접근에 있어 특정 변인과의 단일한 관계가 아니라 다양한 변인들 간의 포괄적이고 종합적 관계를 고려하는 점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진로적응력이 어떤 변인과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변인이 선행 역할을 하는지를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진로적응력에 영향을 주는 개인의 내적인 특성과 외적인 행동 특성의 관계를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진로적응력과 관련된 변인을 고려할 때, 먼저 진로적응력이 직업적 환경 변화를 인지하며 이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점에서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현대와 같이 미래에 대한 예측이 어려운 환경에서 진로준비행동에서 자신과 직업의 충분한 탐색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Krieshok, Black과 McKay(2009)의 연구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서는 진로의사결정에 있어 합리적인 접근과 직관적인 접근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를 위해 자신에 대한 탐색과 직업에 대한 탐색처럼 합리적 접근과 더불어, 다양한 분야의 경험으로 진로선택의 기회를 확장할 수 있는 직관적인 탐색의 접근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이러한 진로의사결정에 있어 다각적인 접근은 진로의사결정과 관련된 개인의 가능성을 새로이 발견하게 함으로써 개인 스스로에 대하여 긍정적인 신뢰체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Krumboltz, 2004; Vianen, Pater, & Preenen, 2009).

진로적응력에 있어 이러한 다각적인 측면과 함께 그 중요성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경험적인 실증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진로준비를 위한 행동과 이로 인한 개인의 성향과 인지적 특성이 진로적응력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유도 전공 대학생들의 진로탐색에 따른 진로적응력 및 진로준비행동의 구조적 관계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증하였다. 다양한 변인들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고 각 변인들 간 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유도전공 대학생들의 진로교육과 진로상담 현장에서 진로준비행동을 위한 다각적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연구가설

이 연구는 유도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탐색에 따른 진로적응력 및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유도전공 대학생들의 진로탐색은 진로적응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유도전공 대학생들의 진로탐색은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유도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적응력은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연구대상 표집은 경기도에 소재한 Y대학교를 재학 중인 대학생 가운데 유도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표집을 하였다. 구체적으로 2020년 3월부터 1월 까지 약 1개월 간 250명의 유도전공 대학생에게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250개의 데이터 가운데 무기입된 데이터와 불성실한 데이터를 제외하여 211개의 데이터를 최종 데이터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구체적인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변인	빈도	퍼센트
성별	남	115	54.5
	여	96	45.5
학년	1학년	16	7.6
	2학년	46	21.8
	3학년	94	44.5
	4학년	55	26.1
입상경력	있음	126	59.7
	없음	85	40.3
수련기간	5년 미만	82	38.9
	5-10년	115	54.5
	10년 이상	14	6.6
	합계	211	100.0

성별은 남성이 115명(54.5%), 여성이 96명(45.5%)으로 나타났으며, 학년은 1

학년 16명(7.6%), 2학년 46명(21.8%), 3학년 94명(44.5%), 4학년 55명(26.1%)으로 나타났다. 입상경력에서는 있음이 126명(59.7%), 없음이 85명(40.3%)으로 나타났다. 수련기간에서는 5년 미만이 82명(38.9%), 5-10년이 115명(54.5%), 10년 이상이 14명(6.6%)으로 나타났다.

2. 조사도구

설문지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항목 4문항, 진로탐색 항목 9문항(자신탐색, 직업탐색, 기회탐색), 진로적응력에 관한 항목 16문항(진로관심, 진로통제, 진로호기심, 진로자신감), 진로준비행동에 관한 항목 8문항(정보수집, 직업체험)으로 총 37문항 모두 5점 리커트(Likert) 척도로 구성하였다. 진로탐색은 최동선(2002)이 개발한 대학생용 진로탐색행동 측정도구를 본 연구의 취지에 맞도록 수정하였으며, 진로적응력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Tak(2012)가 개발한 진로적응 척도(CAAS: Career Adapt-Ability Scale)를 본 연구의 취지에 맞도록 수정하였다. 진로준비행동 척도는 김유신과 한태용, 최성범(2015)의 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의 취지에 맞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3. 타당도 및 신뢰도

본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들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검증하고자 탐색적 요인 분석 및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측정도구의 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주성분분석과 베리맥스를 이용하여 직각회전을 사용하였다. 요인은 고유값 1.0 이상 및 요인 적재치 .4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다.

첫째, 진로탐색은 자신탐색, 기회탐색, 직업탐색으로 구분되며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3개의 요인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Cronbach's α 계수를 통해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자신탐색 .909, 기회탐색 .765, 직업탐색

.886으로 나타나 신뢰도가 확보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구형성 검정과 KMO 표준적합도 검정 결과 .7 이상으로 나타나 적합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2. 진로탐색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자신탐색	기회탐색	직업탐색	h ²
적성, 흥미, 성격 등을 알고자 노력	.929	.059	.106	.877
성공한 사람들과 나를 비교	.926	-.021	.039	.860
나의 진로에 관해 생각	.893	.128	.019	.814
관련 직장, 기관의 담당자에게 연락	.027	.914	.132	.854
학과 교수에게 직업에 대해 상의	.081	.888	.200	.835
취업설명회나 직업박람회 참관	.066	.833	.264	.767
다양한 직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	-.006	.051	.910	.830
신문이나 잡지에서 직업 자료 탐색	.003	.334	.829	.798
전문상담가에게 상담	.157	.224	.633	.475
Eigenvalues	2.553	2.502	2.055	
누적(%)	28.371	27.796	22.829	
누적(%)	28.371	56.167	78.996	
Cronbach's α	.909	.765	.886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chi^2= 1097.642, df= 36, p= .000$			
Kaiser-Meyer-Olkin	.750			

둘째, 진로적응력은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진로호기심, 진로자신감, 진로관심, 진로통제 등 4개의 요인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Cronbach's α 계수를 통하여 신뢰도 검증 결과, 진로호기심 .937, 진로자신감 .879, 진로관심 .857, 진로통제 .807로 나타나 신뢰도가 확보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구형성 검정과 KMO 표준적합도 검정 결과도 적합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3. 진로적응력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진로 호기심	진로 자신감	진로 관심	진로 통계	h^2
내 주변 환경을 탐색	.863	.157	.306	.138	.883
성장할 수 있는 기회 탐색	.847	.179	.237	.187	.841
선택하기 전 다른 선택 사항 탐색	.798	.325	.161	.228	.821
문제해결 시 다양한 방법 탐색	.724	.204	.353	.257	.756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깊이 탐색	.701	.377	.286	.240	.773
목표달성, 문제해결 등을 위해 새로운 것을 배움	.205	.852	.234	.159	.848
문제해결, 목표달성 시내 능력을 충분히 발휘	.199	.804	.245	.158	.771
목표추진, 과제해결 과정 등에서 어려움을 극복	.390	.673	.147	.228	.679
주어진 문제를 잘 해결	.190	.672	.218	.344	.654
내 미래의 모습은 어떨지 생각	.230	.278	.816	.080	.802
오늘의 선택이 내 미래를 좌우한다는 인식	.239	.323	.812	.066	.826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한다.	.350	.238	.689	.191	.690
내가 선택해야 하는 교육, 직업적 선택 인식	.223	.030	.644	.285	.547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	.218	.144	.136	.855	.817
나 스스로 결정을 내림	.213	.277	.309	.757	.790
내 행동에 대해 책임	.247	.380	.074	.611	.584
Eigenvalues	3.822	3.103	2.901	2.256	
누적(%)	23.885	19.395	18.130	14.097	
누적(%)	23.885	43.281	61.410	75.507	
Cronbach's α	.937	.879	.857	.807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chi^2 = 2538.853, df = 120, p = .000$				
Kaiser-Meyer-Olkin	.903				

셋째, 진로준비행동은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정보수집, 직업체험 등 2개의 요인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Cronbach's α 계수를 통해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정보수집 .884, 직업체험 .870으로 나타나 신뢰도가 확보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구형성 검정과 Kaiser-Meyer-Olkin(KMO) 표준적합도 검정 결과 또한 적합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4. 진로준비행동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정보수집	직업체험	h^2
나에게 맞는 직업에 대한 정보 수집	.814	.227	.732
취미나 특기, 소질과 연관된 직업 탐색	.805	.327	.755
직업에 대한 사이트에서 정보검색	.798	.399	.796
내게 맞는 직업 생각	.745	.420	.715
전문가들에게 경험담이나 조언, 충고	.274	.879	.676
원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대화 및 조언	.289	.797	.719
하고자 하는 직업을 직접 체험	.351	.740	.847
직업이나 진로 관련 분야 대회 참가	.442	.693	.671
Eigenvalues	2.982	2.930	
누적(%)	37.272	36.627	
누적(%)	37.272	73.899	
Cronbach's α	.884	.870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chi^2 = 1100.005, df = 28, p = .000$		
Kaiser-Meyer-Olkin	.881		

4. 자료처리방법

본 연구의 자료처리를 위하여 SPSS 18.0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변인들의 요인구조 차원성과 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뢰도분석은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가설을 규명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으로 변수 간 상관관계 및 인과관계를 알아보았다. 가설검증을 위한 유의수준은 $\alpha = .05$ 로 설정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상관관계 분석

진로탐색, 진로적응력, 진로준비행동 간의 상관관계와 다중공선성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하위요인 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중공선성이 의심되는 요인 간의 관계는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Kline, 1998).

표 5. 변인 간 상관관계분석 결과

	자신 탐색	기회 탐색	직업 탐색	진로 호기심	진로 자신감	진로 관심	진로 통제	정보 수집	직업 체험
자신 탐색	1								
기회 탐색	.095	1							
직업 탐색	.123	.355**	1						
진로 호기심	.149*	.266**	.390**	1					
진로 자신감	.296**	.401**	.380**	.494**	1				
진로 관심	.173*	.282**	.287**	.576**	.517**	1			
진로 통제	.170*	.309**	.380**	.545**	.582**	.468**	1		
정보 수집	.394**	.407**	.354**	.509**	.532**	.482**	.548**	1	
직업 체험	.433**	.510**	.369**	.474**	.469**	.491**	.476**	.725**	1

* $p < .05$, ** $p < .01$

2. 진로탐색이 진로적응력에 미치는 영향

첫째, 진로탐색이 진로적응력의 하위요인인 진로호기심을 예측하는 설명력은 17.9%($R^2 = .179$)로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이 15.003으로 $p < .001$ 수준에서 회귀식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탐색의 하위요인 중 직업탐색 ($\beta = .329, p < .01$), 기회탐색 ($\beta = .139, p < .05$)의 순으로 진로호기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에 대한 VIF값을 알아본 결과 VIF값이 모두 2이하의 값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6. 진로탐색이 진로적응력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i>B</i>	<i>SD</i>	β	<i>t</i>	<i>p</i>	<i>VIF</i>
	(상수)	.549	.472		1.163	.246	
진로 호기심	자신탐색	.108	.072	.095	1.497	.136	1.018
	기회탐색	.176	.086	.139	2.044	.042	1.153
	직업탐색	.485	.100	.329	4.831	.000	1.161
F= 15.003, R= .423, $R^2 = .179, \Delta R^2 = .167$							
	(상수)	-.618	.436		-1.418	.158	
진로 자신감	자신탐색	.268	.067	.237	3.992	.000	1.018
	기회탐색	.363	.079	.291	4.601	.000	1.148
	직업탐색	.362	.093	.247	3.906	.000	1.155
F= 26.932, R= .530, $R^2 = .281, \Delta R^2 = .270$							
	(상수)	1.095	.410		2.668	.008	
진로관심	자신탐색	.125	.063	.129	1.983	.049	1.018
	기회탐색	.213	.074	.199	2.868	.005	1.148
	직업탐색	.251	.087	.200	2.883	.004	1.155
F= 10.835, R= .368, $R^2 = .136, \Delta R^2 = .123$							
	(상수)	.781	.391		1.998	.047	
진로통제	자신탐색	.110	.060	.116	1.834	.068	1.018
	기회탐색	.203	.071	.192	2.872	.005	1.148
	직업탐색	.368	.083	.297	4.427	.000	1.155
F= 16.395, R= .438, $R^2 = .192, \Delta R^2 = .180$							

둘째, 진로탐색이 진로적응력의 하위요인인 진로자신감을 예측하는 설명력은 28.1%($R^2 = .281$)로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이 26.932으로 $p < .001$ 수준에서 회귀식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탐색의 하위요인 중 기회탐색($\beta = .291$, $p < .001$), 직업탐색($\beta = .247$, $p < .001$), 자신탐색($\beta = .237$, $p < .001$)의 순으로 진로자신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에 대한 VIF값을 알아본 결과 VIF값이 모두 2이하의 값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진로탐색이 진로적응력의 하위요인인 진로관심을 예측하는 설명력은 13.6%($R^2 = .136$)로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이 10.835로 $p < .001$ 수준에서 회귀식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탐색의 하위요인 중 직업탐색($\beta = .200$, $p < .01$), 기회탐색($\beta = .199$, $p < .01$), 자신탐색($\beta = .129$, $p < .05$)의 순으로 진로관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에 대한 VIF값을 알아본 결과 VIF값이 모두 2이하의 값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진로탐색이 진로적응력의 하위요인인 진로통제를 예측하는 설명력은 19.2%($R^2 = .192$)로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이 16.395로 $p < .001$ 수준에서 회귀식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탐색의 하위요인 중 직업탐색($\beta = .297$, $p < .001$), 기회탐색($\beta = .192$, $p < .01$)의 순으로 진로통제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에 대한 VIF값을 알아본 결과 VIF값이 모두 2이하의 값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진로탐색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첫째, 진로탐색이 진로준비행동의 하위요인인 정보수집을 예측하는 설명력은 32.9%($R^2 = .329$)로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이 33.906으로 $p < .001$ 수준에서 회귀식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탐색의 하위요인 중 자신탐색($\beta=.340$, $p<.001$), 기회탐색($\beta=.302$, $p<.001$), 직업탐색($\beta=.205$, $p<.01$)의 순으로 정보수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에 대한 VIF값을 알아본 결과 VIF값이 모두 2이하의 값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진로탐색이 진로준비행동의 하위요인인 직업체험을 예측하는 설명력은 43.7%($R^2=.437$)로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이 53.460으로 $p<.001$ 수준에서 회귀식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탐색의 하위요인 중 기회탐색($\beta=.412$, $p<.001$), 자신탐색($\beta=.372$, $p<.001$), 직업탐색($\beta=.176$, $p<.01$)의 순으로 직업체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에 대한 VIF값을 알아본 결과 VIF값이 모두 2이하의 값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7. 진로탐색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D	β	t	p	VIF
정보수집	(상수)	.656	.319		2.055	.041	
	자신탐색	.291	.049	.340	5.919	.000	1.018
	기회탐색	.286	.058	.302	4.959	.000	1.148
	직업탐색	.227	.068	.205	3.344	.001	1.155
	F= 33.906, R= .574, $R^2=.329$, $\Delta R^2=.320$						
직업체험	(상수)	-.243	.339		-.716	.475	
	자신탐색	.369	.052	.372	7.066	.000	1.018
	기회탐색	.452	.061	.412	7.375	.000	1.148
	직업탐색	.227	.072	.176	3.147	.002	1.155
	F= 53.460, R= .661, $R^2=.437$, $\Delta R^2=.428$						

4. 진로적응력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첫째, 진로적응력이 진로준비행동의 하위요인인 정보수집을 예측하는 설명력은 41.6%($R^2=.416$)로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이 36.485으로 $p<.001$ 수준에서 회귀식

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적응력의 하위요인 중 진로통제($\beta=.253, p<.001$), 진로자신감($\beta=.218, p<.01$), 진로호기심($\beta=.179, p<.05$), 진로관심($\beta=.148, p<.05$)의 순으로 정보수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에 대한 VIF값을 알아본 결과 VIF값이 모두 2이하의 값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진로적응력이 진로준비행동의 하위요인인 직업체험을 예측하는 설명력은 35.1%($R^2=.351$)로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이 27.768으로 $p<.001$ 수준에서 회귀식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적응력의 하위요인 중 진로관심($\beta=.227, p<.01$), 진로통제($\beta=.186, p<.05$), 진로자신감($\beta=.160, p<.05$), 진로호기심($\beta=.162, p<.05$)의 순으로 직업체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에 대한 VIF값을 알아본 결과 VIF값이 모두 2이하의 값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8. 진로적응력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i>B</i>	<i>SD</i>	β	<i>t</i>	<i>p</i>	<i>VIF</i>
정보수집	(상수)	1.442	.198		7.297	.000	
	진로호기심	.134	.053	.179	2.511	.013	1.781
	진로자신감	.166	.053	.218	3.107	.002	1.736
	진로관심	.130	.061	.148	2.128	.035	1.691
	진로통제	.226	.063	.253	3.572	.000	1.756
F= 36.485, R= .645, R ² = .416, ΔR^2 = .404							
직업체험	(상수)	1.308	.241		5.422	.000	
	진로호기심	.141	.065	.162	2.162	.032	1.781
	진로자신감	.141	.065	.160	2.163	.032	1.736
	진로관심	.232	.075	.227	3.109	.002	1.691
	진로통제	.193	.077	.186	2.500	.013	1.756
F= 27.768, R= .593, R ² = .351, ΔR^2 = .339							

IV. 논의

본 연구는 유도 전공 대학생들의 진로탐색, 진로적응력,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도전공 대학생들의 진로탐색이 진로적응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진로탐색의 하위요인인 기회탐색, 직업탐색은 진로적응력의 모든 요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탐색 요인은 진로호기심과 진로통제 요인을 제외한 진로자신감, 진로자신 요인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를 통해 유도전공 대학생들이 향후 직업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데 있어 자신과 직업과 진로기회에 대한 진로탐색이 중요하고 이러한 진로탐색은 진로의사결정에 있어 자신의 능력을 믿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하여 Pitz와 Harren(1980)은 의사결정능력이 진로 대안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가 있고, 다양한 진로선택 시 가능한 결과들을 계획할 수 있을 때 개발된다고 하였으며, Gati(1986)는 주어진 대안들 중 어떤 선택한다는 것은 투입된 자원과 관련이 있으므로, 불확실한 의사결정은 개인의 선호도와 정보의 부족에 기인한다고 하였다. 또한 Flum과 Blustein(2000)은 진로탐색을 전 생애에 걸친 자아의형성과정이라고 하여 진로에 대한 탐색이 단순한 정보수집이 아니라 개인의 인지적 변화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진다.

Krieshok 등(2009)은 삶의 전반에 있어 다양한 경험과 관심 등의 폭넓은 차원에 있어서 탐색행동이 중요하다고 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의미를 같이 한다. 다양한 경험과 참여는 개인의 가능성을 새롭게 발견하고 확대하여 자아 정체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Krumboltz, 2004). 또한 개인의 사고와 역량, 가치관 등을 재창조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Savickas, 2005) 향후 미래를

준비하는 진로개발에 있어 중요한 의미가 될 수 있다.

둘째, 유도전공 대학생의 진로탐색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진로탐색의 모든 하위요인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탐색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진로탐색이 적성검사, 진로교육, 인턴십과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 등 진로를 위한 행동을 변화시킨다고 언급한 김덕환과 강순희(2015)의 연구가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또한 사회인지 진로 이론을 통하여 진로탐색수준이 높아지면 진로에 대한 준비행동이 높아진다고 언급한 선행연구가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김수란, 전미경, 2004; 문소윤, 강인호, 2012; 박은정, 오인하, 2015; 여윤정, 2000; 전미리, 김봉환, 2015). 따라서 효과적인 유도전공 대학생들의 진로 상담을 위해 학년 별 진로 및 취업 상담 프로그램을 차별화하여 개발해야 하며, 학과나 교내의 진로센터에서는 변별된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유도전공 대학생들의 성공적인 진로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유도전공 대학생의 진로적응력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진로적응력의 모든 하위요인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관련 선행연구 결과가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고경필, 심미영, 2014; 양은희, 2018), 진로적응성이 높은 유도전공 대학생은 어떠한 진로 환경에서든 잘 대처할 수 있으며(Savickas, 1997), 직업적 요구에 잘 적응하고 해당 직업이 자신의 욕구에 잘 맞도록 진로준비행동이 적극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적응성이 높다는 것은 자발적으로 행동하고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높은 것과 동시에 필요에 따라서 환경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조화진, 서영석, 2010). 적응에 대한 수준은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적응이란 개인의 특성과 환경의 일치, 서로 간의 상호작용으로 볼 수 있으며 진로의 발달적 관점과 일치한다(정지은, 2013). 진로적응력은 개인의 다양한 진로결과과

취업 현장에서 성공적인 적응을 위한 능력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도전공 대학생들이 진로의 준비와 결정 과정에서 예측 불가능한 직업 세계의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적응성을 높여야 한다. 이에 전 생애에 걸쳐 체험하는 다양한 진로결정과정에서 성공적인 적응과 대처를 위해서는 진로탐색과 진로적응성 같은 심리적, 인지적 능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이 연구에서는 유도 전공 대학생들의 진로탐색에 따른 진로적응력 및 진로준비행동의 구조적 관계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경기도에 소재한 Y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유도전공자들을 대상으로 표집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2020년 3월부터 5월 까지 약 2개월 간 250명의 유도전공 대학생을 표집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 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유도전공 대학생들의 진로탐색은 진로적응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유도전공 대학생들의 진로탐색은 진로탐색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유도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적응력은 진로준비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생애에 걸쳐 체험하는 다양한 진로결정과정에서 성공적인 적응과 대처를 위해서는 진로탐색과 진로적응성 같은 심리적, 인지적 능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2. 제언

본 연구에서는 양적연구를 통해 유도전공 대학생들의 진로탐색에 따른 진로적응력 및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다음의 과제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첫째, 표본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넓은 표집과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표집방법으로 표본구성을 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유도전수의 진로탐색, 진로적응력,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외적변인을 고려하지 않아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변인을 고려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보다 의미가 있도록 해석하기 위해 대표성을 띄는 유도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이들의 진로와 관련된 심리적 변인을 이끌어 내도록 질적 연구방법으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고경필, 심미영(2014). 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취업스트레스, 진로성숙 및 진로준비 행동의 구조관계 분석. **진로교육연구**, 27(1), 19-38.
- 김수란, 정미경(2014). 대학생 대상 진로교육 교과목이 진로장벽, 진로결정, 진로준비 행동,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교육방법연구**, 26(3), 409-433.
- 문소윤, 강인호(2012). 호텔 기업의 인턴십 만족도가 기업이미지와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 27(1), 107-130.
- 박은정, 오인하(2015). 대학생의 진로선택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글로벌경영학회**, 12(2), 21-46.

- 양은희(2018). **전문대학생의 성격요인 및 심리사회적 변인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적응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대학원.
- 여윤정(2000). **고등학생의 자아개념에 따른 진로의사결정 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 전미리, 김봉환(2015).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성격 5요인과 인지행동적 변인의 영향 - 사회인지진로이론의 관점. **진로교육연구**, 28(4), 41-57.
- 조화진, 서영석(2010). 부모애착, 분리-개별화, 성인애착, 대학생활적응,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2), 385-411.
- 통계청. (2015). **2015년 6월 고용동향**. 대전: 통계청.
- Flum, H., & Blustein, D. L. (2000). Reinvigorating the study of vocational exploration: A framework for research.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6, 380-4
- Gati, I. (1986). Making career decisions: A sequential elimination approa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3(4), 408.
- Germeijs, V., & Verschueren, K. (2007). *High school students' career decision-making process: Consequences for choice*
- Guzman, A. B., & Choi, K. O. (2013). The relations of employability skills to career adaptability among technical school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2(3), 199-207.
- Koen, J., Klehe, U. C., Van Vianen, A. E., Zikic, J., & Nauta, A. (2010). Job-search strategies and reemployment quality: The impact of career adaptabilit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7(1), 126-139.
- Krieshok, T. S., Black, M. D., & McKay, R. A. (2009). Career decision making: The limits of rationality and the abundance of non-conscious process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5(3), 275-290.
- Krumboltz, J. (2004). *Luck is no accident: Making the most of happenstance in your life and career*. Atascadero, CA: Impact Publishers.
- Morrison, R. F., & Hall, D. T. (2002). *Career Adaptability*. In D. Whetten(Ed.),

- Careers in and out of organizations.* (p. 228). CA: Sage.
- Pitz, G. F., & Harren, V. A. (1980). An analysis of career decision-making from the point of view of information-processing and decision-theor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6*, 320-345.
- Savickas, M. L. (1997). Career Adaptability: An Integrative Construct for Life-Span, Life-Space Theory.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5*(3), 247-259.
- Savickas, M. L. (2002). *Career construction: A developmental theory of vocational behavior*. In D. Brown, & Associates (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4th ed.).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Savickas, M. (2005). *The theory and practice of career construction*. In S. D. Brown & R. W. Lent (Eds.), *Career development and counseling: Putting theory and research to work*. Hoboken, NJ: John Wiley & Sons Inc.
- Vianen, A. E., Pater, I. E., & Preenen, P. T. (2009). Adaptable careers: Maximizing less and exploring more.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57*(4), 298-309.

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Adaptabilit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ccording to Career Search of Judo College Students

Lee, Won-Hee(Youngin Univ.)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career adaptabilit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ccording to career exploration of judo college students. To conduct the study, a sample was conducted for judo majors among university students attending Y University in Gyeonggi-do. Specifically, 250 judo major students were sampled for about two months from March 2020 to May 2020.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Win 18.0 program.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career exploration of judo major students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career adaptability. Second, career exploration of judo major student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career exploration behavior. Third, career adaptability of judo major student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Key words: Career Search, Career Adaptability, Career Preparation Behavior

논문투고일 : 2021.03.30.

심사일 : 2021.04.03.

심사완료일 : 2021.04.30.